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등공양하면 재물·지혜 얻으리

석등(石燈)에 깃든 법수(法數)

우리나라에는 백제시대 이후로 많은 석등들이 남아 있다. 근래에 만들어진 것들을 제외하면, 280여 기(基)의 조선 이전에 제작된 우수한 석등들이 남아 있다고 한다. 대승불교가 유행(流行)한 동양 삼국 중에서 석등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단연 한국이다.

일본·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석등(石質)이 우수한 화강암이 풍부하지는 않아서, 대개 나무나 금속으로 등을 만들어 사찰 경내에 설치한 반면에 한국에는 의산의 황등석과 같은 매우 품질이 뛰어난 돌들이 많아 수각(水脚) 석불(石佛) 주춧돌 돌계단을 비롯한 많은 석조작품들이 아직도 전국각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에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석등들이 많이 남아있다. 석등이 유행하게 된 근거 중의 하나인 (불설사등공덕



동화사의 석등

에 등명을 보시하면, 4가지 법을 얻는다. 그 것은 하나, 색신(色身)이요, 둘째, 재산과 재물이요, 셋째, 큰 선행이요, 넷째 지혜이다" 라고도 설했다.

경전에서 언급된 이런 숫자들을 법수(法數)라고 한다. 불교의 교리를 숫자로 표현하거나 지칭(指稱)하는 데서 사용하는 숫자들이다. 법수가 불교미술이나 불교예술에서 중요한 이유는 교리(敎理)들을 숫자를 통해서 각각의 작품에서 표현하기 때문이다.

양양 낙산사(洛山寺)에서 사천왕각 아래의 수각을 디자인할 때에는 수각의 디자인을 상하로 구분한 후에 상천(上泉)의 기단을 팔각(八角)으로 하고, 상단을 사각(四角)으로 한 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석등(石燈)에서 하대석의 복련(覆蓮)의 연엽(蓮葉)이 8개이거나, 중대석의 간주(竿柱)나 화사석(火捨石)이 팔각(八角)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왜 수많은 수돌 가운데서 8이라는 숫자를 강조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서 불교교리에 근거해서 지어진 많은 불교미술작품에서 보여지는 법수(法數)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수를 통해 바라본 불교미술의 세계는 실로 아름답고, 심오한 불교의 진리들을 말없이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정(無情)의 표현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미술사학은 불교학의 깊은 이해와 신심(信心)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행의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화강암 풍부한 한국에 석등 많아 팔각 석등은 팔정도 의미

경(佛說施燈功德經)은 중국 중북부의 섬서성(陝西省)의 성도(省都)인 서안(西安)에 위치한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번역됐다고 전한다.

흥선사는 진(晉)나라 무제(武帝) 연간(265-289년)에 건립돼 처음에는 중선사(中善寺)라 불리다가 582년에 대흥선사로 개명했다. 수당(隋唐) 시대에는 중국제일 사찰로 역경원(譯經院)이 설치됐다. 그곳에서는 많은 인도승려들이 역승(譯僧)으로 살다갔을 뿐만 아니라 중국 밀교(密敎)의 사원지이고 진언종(眞言宗)의 중심지였다.

북인도의 오장국(烏菴國) 출신으로 566년에 북제(北齊)의 업도(鄴都)에 도착, 대흥선사에서 (불설사등공덕경)을 번역한 분은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 스님이다. 기록에 의하면, 589년 수(隋)나라 개황(開皇) 9년에 세수 100세를 일기로 입적했다고 전한다.

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사등(施燈)의 공덕(功德)을 밝히는 많은 법문을 하시면서, 항상 숫자로 헤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탑과 사찰에 등명(燈明)을 보시하면, 사후(死後) 33천에 태어날 것이고, 그 곳에서 5가지 청정을 얻게 된다"고 설해져 있다. 또, "누구든 사탑

“따스한 선율로 마음치유를”

유나방송 개국 5주년 기념 음악회
4월 22일 오후4시 성남아트센터서
서울신포니에타, 가민 등 무대올라



피리연주가 가민

서울신포니에타

가수 한영애

마음치유와 명상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 '유나방송'이 개국 5주년을 맞아 청취자와 시민들에게 음악회를 선사한다. 유나방송(대표 김재진)은 너(You)와 나(I)의 합성어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하나'라는 뜻의 불이(不二)를 상징하며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마음공부전문방송이다.

유나방송은 BBS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음악'의 진행자로 유명한 정목 스님이 이끄는 선다담과 정각사를 모태로 하고 있다.

유나방송은 마음의 안식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위안이 돼주고 방향하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목 스님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 김재진 시인의 '가슴에 남는 음악' 정현경 교수의 '마음을 훈련하면 뇌가 바뀐다' 김일목 스님의 '윤회와 행복한 죽음' 헤민 스님의 '희망의 트윗, 헤민 스님'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방송을 운영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34개국 4만5000여 회원이 종교의 벽을 넘어 유나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정목 스님은 "유나방송은 그간 수많은 사람에게 치유와 위안의 기쁨을 안겨드렸다. 우리 이미 작은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마음의 에너지를 곳곳에 퍼며 제약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됐다"며 "다섯 번째의 생일을 자축하는 음악회를 통해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포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나방송은 4월 22일 오후 4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차이콥스키의 왈츠곡으로 서막을 연다. 이어 피리연주가 가민이 태평소와 생황, 피리로 '머나먼 곳의 바람' 가락 '리베르탱고'를 연주한다. 가민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을 부수직을 역임한 재원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과 정삼급 연주자들이 모인 실내악단 '서울신포니에타'

의 협연도 선보인다. 서울신포니에타(단장 김영준)는 2007년 한국음악 비평가협회로부터 한국음악대상을 수상한 단체로 국내 음악계의 선도와 발전을 위해 매년 10여 회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음악회,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연주회 등 사회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서울신포니에타는 유나방송 개국을 축하하는 '세상에 꽃이 필때'를 시작으로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러 유명해진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영화 닥터 지바고 中 라라의 테마' 'Happy Birth Day To You' 'Moon River' 'My Way' '몬티의 차르다쉬' 등을 연주한다.

이어 블루스의 여왕 한영애가 '여울목' 'Over the Rainbow' '조울' 등을 노래한다. 김재진 대표는 "개국 5주년을 자축하기



유나방송 '길을 찾는 사람에게' 진행자 정목 스님

위해 국악, 클래식, 가요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가와 실내악단을 초청했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소수의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유나방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국제적인 치유콘서트를 구상해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유나방송 www.una.or.kr (02)3216-1789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주장자 소리 중생 번뇌 씻어줘”

4월 12~18일 서울 백악미술관서 열려
두타 스님 제작한 주장자 등 100점 전시

주장자는 큰스님들이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한 도구이다. 주장자를 '팡' 하고 내려치는 순간 법계를 울리는 지혜의 소리가 사된 중생들의 번뇌를 씻어낸다.

1980년대 초 은사스님에게 주장자와 지팡이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제자는 30년 뒤, 100여 점이 넘는 육환장(六環杖) 주장자 지팡이를 만들었다. 공주 금동암 회주 두타 스님은 1987년 금동암 창건 후부터 본격적으로 육환장(龍環杖)을 구하려 다니면서 육환장과 주장자 등을 제작했다.

육환장은 감태나무 중 버락을 맞아 꺾게 된 자국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육환장이란 이름은 꺾게 된 자국이 마치 용의 눈처럼 고르게 터져 나와 있어 지칭된 말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예부터 큰스님들의 주장자나 지팡이, 육환장 등을 만들 때 육환장이 주로 애용됐다.

보통 육환장은 160~180cm의 크기로 곧게 뻗어 있으며, 검은 무늬가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한다. 때문에 주장자에 사용될 좋은 육환장을 고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타 스님은 "육환장은 60~70%가 휘어서 자라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무를 곧게 피는 과정이 중요하다. 보관이나 손질방법 등이 잘못되면 나무가 본래대로 다시 휘어져 버린다"고 설명했다.

두타 스님은 "은사스님이신 능엄 스님으로 인해 육환장에 대해 처음 알게 됐지만, 주변의 좋은 인연들로 인해 많은 주장자, 지팡이, 육환장 등을 완성할 수 있었



왼쪽부터 육환장·지팡이·주장자

다"며 "이번 전시는 소중한 인연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스님이 육환장으로 직접 만든 육환장 주장자 지팡이들은 4월 12~18일 서울 종로 백악미술관 특별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02)734-4205 이은정 기자

해공 스님, '법화경' 독송 앨범 발매

안양 자운정사 해공 스님은 일반 불자들이 (법화경)을 쉽게 수지 독송 할 수 있도록 '법화경요품' '묘법연화경' 두 앨범을 선보였다.

이번 앨범은 (법화경)의 방대한 양을 한 장의 CD에 담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묘법연화경'에는 (법화경) 7권 28품이 한글독송으로 한 장의 앨범에 모두 담겨있다. '법화경요품'은 (법화경)의 각 품별 중요 내용만 간추려져 담겨있다.

한편, 해공 스님은 4월 중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부모은중경)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031)386-1569 이은정 기자



윤달 삼사순례 무료점심공양

전국에서 불심이 가장 돈독한 부산의 관음제일기도도량 칠보사가 전국 최대 크스님 들께 알려드립니다. 칠보사는 천마산 중턱의 조선 시대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해맞이 기도도량입니다. 그리고 5~10분거리에는 부산항, 자갈치시장, 송도해수욕장이 있고 또한 방정할 수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과 다대 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법당에 모셔져있는 조선시대 관세음보살상

칠보사에 오셔서 무료로 점심공양과 철야정진기도를 하시면 대덕크스님들과 불자들이 산승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한점씩 무료 법보시합니다.

※속소 관계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

부산서 저구 남부민1동 93번지 ☎051)244-2040
대한불교조계종 천마산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불기 닦는일 입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촉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낚시,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셔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량 : 525g
사용기간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웅

영일상사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허수오 된장, 간장 등 허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 (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m²(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 010-8442-4444 (상담)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곡면 흑석1리 368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